

# 주택건설 · 건축 현황 통계

주택건설 · 건축 위축, 보일러 신규시장 축소

1~4월 주거용 주택 건축허가 14.7% 감소

1/4분기 주택건설 22.8 감소...수도권이 추도



올해 들어 주택건설시장이 위축돼 가스보일러 시장도 축소되고 있다.

특히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신규 시장은 급감하고 있다.

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축허가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면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6.4%가 감소했는데 이중 주거용이 14.7% 줄어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.

특히 이러한 감소세는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해 지방은 1%가 증가한 반면 수도권이 12.4%가 감소했다. 그러나 4월 한 달 동안의 감소세는 수도권이 36.2%, 지방이 20.9%로 전반적인 감소정도가 심화되고 있다.

순수한 주택건설실적을 보더라도 지난 1/4분기 동안 10만9,145호 건설에 그쳐 지난해 동기(14만1,318호) 대비 22.8%가 감소했다.

특히 수도권권의 감소가 커 지난해 1/4분기에는 8만4,496호가 건설됐으나 올해 1/4분기에는 5만 8,583호가 건설돼 무려 30.7%가 감소했다. 반면 지방은 1월부터 3월까지 5만562호가 건설 11% 감소에 머물렀다.

그러나 지역별로는 울산 전북, 서울이 각 67.5%, 65.9%, 55.7% 씩 감소해 엄청난 감소세를 보였다. 올해 1/4분기가 지난해 1/4분기보다 오히려 성장한 지역도 7개 시도로 대전과 충북이

각 6,313호 2,464호로 숫자는 적었으나 353.2%와 125.6%가 늘었고 다음 인천이 1만3,539호로 99.7%가 증가했다. 제주도, 강원도, 대구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.

또한 주택의 유형별로 1/4분기에 건설된 주택은 역시 아파트가 8만2,721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 다세대 1만4,841호, 단독 1만185호, 연립 1,398호 순이었다. 지역별로는 경기, 서울, 인천, 부산 순으로 주택건설이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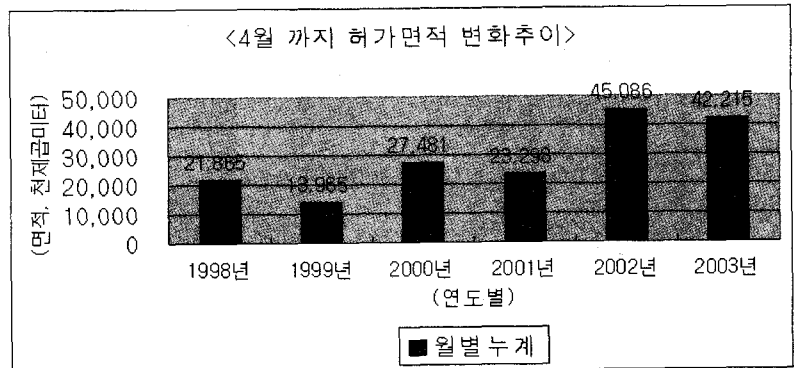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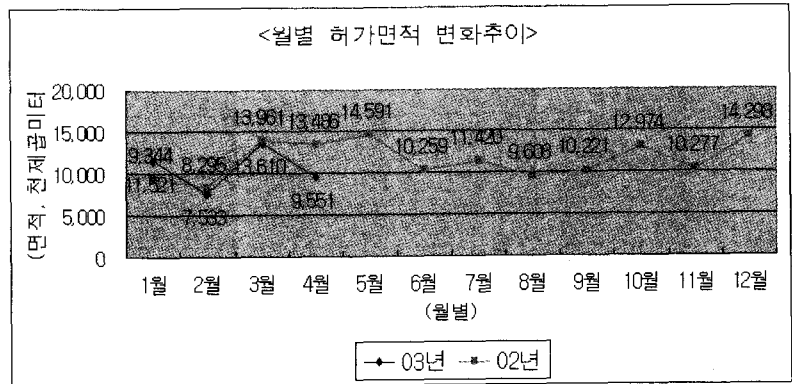
### 2003년 1/4분기 주택건설실적 통계

#### 1. 건축허가 동향

##### 전용면적별 실적 비교

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면적은 42,216천㎡로서 전년 동기 대비 6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금년 4월의 용도별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, 상업용, 공업용 등 모든 용도에서 감소하였으며,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로는 주거용, 상업용은 각각 14.7%, 12.7% 감소한 반면, 공업용, 문교·사회용은 각각 3.0%, 8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

용도별 건축허가

용도별	전년동월			전년동월누계(1-4월)		
	'02. 3	'03. 4	증감(%)	'02. 4	'03. 4	증감(%)
주거용	4,684	3,655	-22.0	13,803	10,814	-21.7
상업용	3,713	4,098	10.4	11,334	12,828	13.2
공업용	1,362	1,331	-2.3	3,592	4,497	25.2
문교·사회용	565	513	-9.2	1,646	2,158	31.1
기타 (농수산용, 공공용)	679	781	15.0	2,021	2,216	9.6

《용도별 건축허가면적 대비표(단위 : 천㎡)》

지역별 실적 비교

지역별로는 전년 4월에 비교할 때 수도권, 지방 모두 각각 36.2%, 20.9% 감소하였으며,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로는 수도권에서는 12.4% 감소한 반면, 지방에서는 1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지역별	전년동월			전년동월누계(1-4월)		
	'02. 4	'03. 4	증감(%)	'02. 4	'03. 4	증감(%)
수도권	7,307	4,662	-36.2	24,776	21,710	-12.4
지방	6,179	4,889	-20.9	20,309	20,505	1.0

